

비오는 거리 감전사고 !!가스폭발 !! 이젠 안심하세요

하절기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시행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을 앞두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 최근 5년간의 전기·가스사고의 33.6%가 우기(6월~8월)에 발생하였으며, 가스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주의 및 시설미비, 타공사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높고 전기는 전기공사 보수 및 취급부주의, 농업업 중장비 감전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하절기 주요 사고 사례

- '01. 7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로등 감전사고로 19명 사망
- '05. 6 지중저압접속함 감전사고로 2명 사망
- '06. 7 서울 양평동 제방붕괴로 지하철공사장 주변 3,046세대 가스 공급 중단

■ 특별안전 점검은 우기시 침수 및 지반침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6.11~22(2주간) 실시되며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 전기·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 우기시 침수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시설

- 가스분야 : LNG인수기지, 도시가스 배관, LPG충전소 등
- 전기분야 : 발전소, 전력소, 지중저압접속함, 빗물배수펌프장 등
- 송유관분야 : 저유소, 송유관시설

■ 특히, 가로등·신호등, 지중저압접속함 등 도로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 1,111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시설의 개보수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지중저압접속함에 대해서는 '06년 전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3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6월말이전에 전국 17,000개소의 접속함에 대해 전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 및 보수를 독려하되,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 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은 물론, 에너지 관련시설의 수해 대응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이 기간중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안전관리 요령"을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전기는 1588-7500으로 가스는 1544-4500으로 전화하면 즉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기·가스 안전공사 지사에서 출동하여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긴급복구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기표원, 13개품목 133개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시판 멀티콘센트·모발건조기 불량제품 ‘주의보’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2-507-6638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판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멀티콘센트·모발건조기·핫플레이트 3개 품목에서 사용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불량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멀티콘센트의 경우에는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온도상승·감전보호 불량이 확인, 기술표준원은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꼽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모발건조기의 경우, 13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충전부의 절연거리 미달 등 구조불량이 확인, 사용시 손가락 등의 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됐다. 핫플레이트는 8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이상운전시험시 불량 확인,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과열로 인한 열판변형 등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사이버쇼핑몰·할인매장·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공청소기·전기주전자·전동칫솔 등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및 표시규정 적합성을 확인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하절기 불법·불량 전기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풍기·전력살충기·훈증살충기·빙삭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7일 안전성조사 사전예고 및 기술세미나를 실시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 대상 시료를 사이버쇼핑몰·대형매장·전문매장 등에서 구입, 안전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소비자 제품안전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그간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후 불시단속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성 조사 일정 및 품목 등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자에게 사전설명·공고하는 사전예고적 안전관리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되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기표원은 지난 4월에 발족한 제품안전 감시단을 통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지속 추적 감시, 불량제품 유통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법정계량단위 올바른 사용 예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2-509-7114~6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²)**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계량단위표〉

구분	사용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하지말아야 할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 사용처 및 제품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건축공사, 포목점, 의류, 골프장 등
넓이	- 제곱미터(m ²) - 제곱센티미터(cm ²) -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논, 밭(田), 토지 건축공사 아파트 등
부피	- 세제곱미터(m ³) - 세제곱센티미터(cm ³) - 리터(L 또는 l)	- 홉, 되, 말 - 석(石), 가마 - 갈론	곡물, 주류, 유류, 음료, 윤활류 등
무게	- 그램(g) - 킬로그램(kg) - 톤(t) - 카라트 (귀금속에 한함)(ct)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농산물, 정육점 식품점, 귀금속 등

- 관련 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시행 일자 : 2007. 7. 1



15일「에너지경영시스템」국제 컨퍼런스 개최 첨단 에너지절약기법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02-2110-5423

고유가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법인「에너지경영시스템(EMS)」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덴마크, 영국 등 8개국이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실시또는 준비 중에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유럽표준화기구(CEN)와 공동으로 TF팀을 작년 11월에 구성하여 '09년 제정을 목표로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표준화기구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에너지 경영시스템은 널리 알려진 ISO9000(품질경영)과 ISO14000(환경경영) 등과 유사하나, 에너지 측정·분석에 첨단기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법을 실제 도입한 듀폰사, 3M사의 경우 5%에서 20%까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 에너지경영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에너지 경영 계획,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기관인 제3자가 이행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

국내 첫 전문기관 ... 전락물자 여부 판정 등 관련 서비스 제공

‘전락물자관리원’ 14일 출범

문의 | 산업자원부 전락물자관리팀 02-2110-5329

전락물자관리 국내 첫 전문기관 ‘전락물자 관리원’이 14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락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 형태였던 ‘전락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전락물자 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오영호 차관,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무역센터 23층 소재 전락물자 관리원 회의실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전락물자 관리원 초대원장에는 전락물자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심성근 前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이 선임됐다. 또, 초대 이사장은 국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이 맡았으며, 경제 4단체 및 주요 업종별 단체 상근임원이 각각 이사에 선임됐다.

전락물자 관리원은 전락물자 해당여부 판정·수출입기업에 대한 교육·자율적 수출 통제기법 도입 등 정부업무 위탁사업과 기업 컨설팅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무역업계의 원활한 무역활동 예정이다.



값비싼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력난을 60억원 들여 핵발전소 건설 태국, 첫 핵발전소 건설 추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성욱 특파원

크라이시 카나수타 태국전력공사(EGAT) 사장은 1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60억달러를 들여 각각 2천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국 사상 첫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너지부는 2021년까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법 개정, 부지선정과 주민동의 등을 전담하게 될 핵발전소 건설위원회를 지난달에 구성했다.

에너지부는 핵발전소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피야스왓스티 암라난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3월 향후 6년 이내에 핵발전소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크라이시 사장은 "태국 근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고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일 수 없으며 석탄은 가격은 싸지만 환경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핵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발전소 건설 부지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지 않은 해안가에 건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작년도 최고 전력 수요는 2만 1천 104MW, 올해는 2만 2천 684MW이며 2021년도에는 5만 223MW로 매년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5년 이내에 3만 2천여M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국의 전력 에너지는 대부분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다른 유전에도 영향 미칠까 우려 BP, 中반대로 베트남 석유·가스 개발 중단

출처 | 연합뉴스 권래현 특파원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BP는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개발 예정이던 석유·가스 개발을 중국과 베트남간의 관계를 고려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비드 니컬러스 BP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이 이 지역의 국경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5-2광구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P가 개발 예정인 5-2광구는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370km가 떨어져있는 곳으로 중국 필리핀 대만 등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에 인접해 있다.

BP는 미국의 코노코, 베트남의 페트로베트남과 함께 20억달러를 들여 이 곳에서 가스와 원유를 개발 할 예정이었다.

중국은 지난 4월 베트남이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주둔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베트남이 BP와 함께 분쟁 지역에 가스배송관을 설치하는 등 도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베트남은 이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영토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번 BP가 중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5-2광구의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최근 원유생산이 줄어들고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며 다른 광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니컬러스 대변인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광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

효성,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진출

출처 | 한국가스신문 고흥규 기자

효성은 최근 한국 서부발전이 발주한 3MW급 삼랑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비는 한전 발전 자회사가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최대 규모다. 효성은 올해 9월 1단계로 2MW급을 준공해 가동하는 데 이어 내년중 2단계로 1MW급을 추가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이용해 자기장을 발생시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현재 한전 발전 자회사가 운영중인 설비는 태안, 삼천포, 동해, 영흥, 영광 등에 포진해있다.

효성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2011년까지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사업 진출을 통해 2010년께 세계적으로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또 "우리회사는 이미 풍력발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풍력발전 시스템 국산화를 선도해 현재 750kW급 발전기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2MW급 발전기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